



◆ 일본 JBIC, 불가리아의 지하철 확장사업에 129억 엔 차관 지원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불가리아와 총 128억 9,400만 엔 한도의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JBIC가 4년만에 불가리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는 것으로서 동 자금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市の 지하철 확장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이로써 불가리아에 대한 JBIC의 해외경제협력 분야 지원누계액은 총 5건, 400억 엔에 달하게 되었다. 본건의 지원조건은 대출금리가 본사업 부문과 컨설팅 서비스 부문이 각각 연 2.2%와 1.8%이며, 10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이다.

수도 소피아市는 인구 120만 명의 관광도시이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최근 자동차 수의 급증으로 시내 교통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시 당국은 지하철을 시내교통의 중심 대안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1호선뿐만 아니라 2·3호선의 건설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번 엔차관 자금은 소피아市 중심부와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2.1km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시내교통난 완화, 교통시스템 선진화 및 시 당국의 재정부담 경감 등 소피아市的 전반적인 교통부문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경사무소】